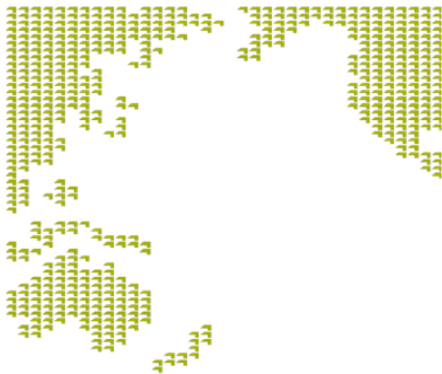


DAISHIN START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2016년 03월 03일 목요일

KOSPI

1947.42 ▲30.76 (1.60%)

	2/26	2/29	3/02
증가	1920.16	1916.66	1947.42
등락	1.59	-3.50	30.76
등락폭(%)	0.08	-0.18	1.60
거래량(백만주)	279	274	322
거래대금(십억원)	4,564	4,488	5,080
시가총액(십억원)	1,176,452	1,174,311	1,193,16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662.25 ▲10.63 (1.63%)

	2/26	2/29	3/02
증가	649.30	651.62	662.25
등락	3.03	2.32	10.63
등락폭(%)	0.47	0.36	1.63
거래량(백만주)	459	575	518
거래대금(십억원)	2,614	2,840	3,042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BOJ가 할 수 있는 것들

Focus ▶ 4p 참고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달러당 110엔대까지 급락했던 엔/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 상승 랠리 지속 여부에 관심

엔저가 지속되려면, BOJ는 1) 추가 자산매입 여력이 있으며, 2) 통화정책이 일본 경기 회복 및 기업 수익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

3월 금정위에서 국채 매입 규모 확대 등 추가 완화가 발표되며 BOJ 자산매입 한계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정책 확대에도 엔화 약세 지속 어려울 것

증시일정 ▶ 2p

Market Data

Snap Shot ▶ 8p

Chart Alarm ▶ 12p

2일 KOSPI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60% 상승한 1,947.42에 거래 마감

매매 및 자금동향 ▶ 18p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EU 2 월 PMI 제조업 잠정 (전기:52.3, 발표:51.0) 日 2 월 닛케이 PMI 제조업 잠정 (전기:52.3, 발표:50.2)	美 12 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기:0.83%, 발표:0.78%) 美 2 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7.8, 발표:92.2) 美 1 월 기존주택매매 (전기:5.45m, 발표:5.47m) 獨 4Q GDP 확정 (전기:1.3%, 발표:1.3%) 獨 2 월 IFO 기업환경 (전기:107.3, 발표:105.7)	美 1 월 신규주택매매 (전기:544K, 발표:494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1 월 내구재 주문 잠정 (전기:-4.6%, 발표:-9.2%) EU 1 월 CPI 확정 (전기:0.4%, 발표:0.3%) 韓 2 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100, 발표:--)	美 4Q GDP 수정 (전기:0.7%, 발표:1.0%) 美 2 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90.7, 발표:91.7) EU 2 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확정 (전기:-8.8, 발표:-8.8) 日 1 월 CPI (신선식품제외) (전기:0.1%, 발표:0.0%) G20 회의(26~27 일)
29	3/1	2	3	4
日 1 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1.9%, 예상:-3.8%) EU 2 월 CPI 예상 (전기:0.3%, 예상:0.0%) 美 2 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전기:55.6, 예상:52.5)	韓 2 월 수출 (전기:-18.5%, 예상:-16.3%) 韓 2 월 수입 (전기:-20.1%, 예상:-16.4%) 中 2 월 Caixin 제조업 PMI (전기:48.4, 예상:48.4) 美 2 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48.2, 예상:48.5) MSCI 정기 리밸런싱 편입	韓 1 월 산업생산 (전기:-1.9%, 예상:-0.4%) 美 2 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205k, 예상:185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韓 2 월 CPI (전기:0.8%, 예상:0.9%) 中 2 월 Caixin 서비스업 PMI (전기:52.4, 예상:--) 美 2 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5, 예상:53.0) 美 1 월 내구재주문 확정 (전기:4.9%, 예상:--)	美 2 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전기:151k, 예상:193k) 美 2 월 실업률 (전기:4.9%, 예상:4.9%) 中 전인대 (5 일)
7	8	9	10	11
EU 3 월 섀넥스투자자기대지수 (전기:6.0, 예상:--) 獨 1 월 공장수주 (전기:-2.7%, 예상:--) IAEA 정례이사회(7~11 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EU 4Q GDP 잠정 (전기:0.3%, 예상:--) 獨 1 월 산업생산 (전기:-2.2%, 예상:--) 日 4Q GDP 확정 (전기:-1.4%, 예상:--) 日 1 월 경상수지 (전기:¥960.7b, 예상:--) 中 2 월 무역수지 CNY (전기:406.2b, 예상:--)	日 2 월 M2 (전기:3.2%,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2 월 CPI (전기:1.8%, 예상:--) 中 2 월 PPI (전기:-5.3%, 예상:--) 日 2 월 PPI (전기:-3.1%, 예상:--) 韓 금통위 ECB 통화정책회의	獨 2 월 CPI 확정 (전기:0.0%, 예상:--) 中 2 월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12 일) (전기:10.0%, 예상:--) 中 2 월 산업생산 (12 일) (전기:6.1%, 예상:--)
14	15	16	17	18
EU 1 월 산업생산 (전기:-1.3%, 예상:--) 日 금정위 (14~15 일)	美 2 월 소매판매 (전기:0.2%, 예상:--) 日 1 월 산업생산 확정 (전기:-- , 예상:--) 中 2 월 M2 (전기:14.0%, 예상:--) 美 FOMC (15~16 일) 日 금정위 (14~15 일)	美 2 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99k, 예상:--) 美 2 월 건축허가 (전기:1202k, 예상:--) 美 2 월 CPI (전기:0.0%, 예상:--) 美 2 월 산업생산 (전기:0.9%, 예상:--) 美 FOMC (15~16 일)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EU 2 월 CPI 확정 (전기:-- , 예상:--) 日 2 월 수출 (전기:-12.9, 예상:--) 日 2 월 수입 (전기:-18.0, 예상:--) EU 정상회의 (17~18 일)	美 3 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91.7, 예상:--) EU 정상회의 (17~18 일)
21	22	23	24	25
美 2 월 기존주택매매 (전기:5.47m, 예상:--) 日 증시휴장(춘분의날)	EU 3 월 ZEW 서베이 예상 (전기:13.6, 예상:--) EU 3 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비 (전기:-8.8, 예상:--) 獨 3 월 IFO 기업환경 (전기:105.7, 예상:--)	美 2 월 신규주택매매 (전기:494k,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2 월 내구재 주문 잠정 (전기:-- , 예상:--) EU 3 월 마켓 제조업 PMI 잠정 (전기:-- , 예상:--) EU 3 월 마켓 서비스 PMI 잠정 (전기:-- , 예상:--) 7 차 TLTRO	美 4Q GDP 최종 (전기:1.0%, 예상:--) 美 4Q 개인소비 최종 (전기:2.0%, 예상:--) 日 2 월 CPI (신선식품제외) (전기:0.0%, 예상:--) 韓 4Q GDP 최종 (전기:3.0%, 예상:--) 美 증시휴장(성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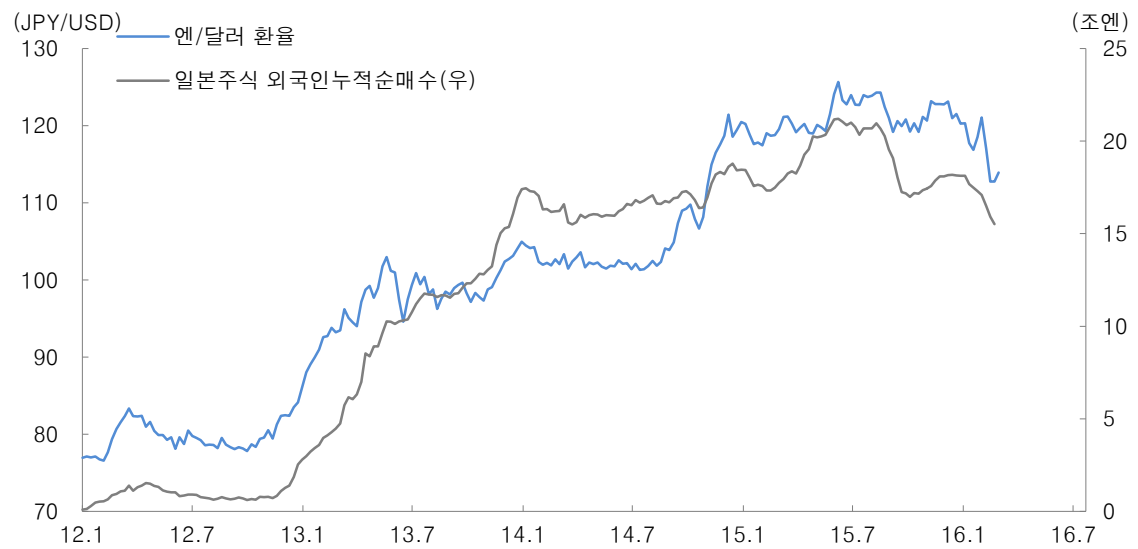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KOSPI 전망

- 유가 급등,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코스피 기술적 반등 가능.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 시점. 정책 신뢰가 가장 강했던 일본에서 정책 실망이 발생. 추가 정책이 나오더라도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 약화는 2~3분기 대표적인 조정요인으로 예상했던 변수. 정책 신뢰 약화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등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코스피 상승 가능성 낮아져
- 반등시 성장주 비중 축소, 수출주(IT, 자동차)와 가치주(Low-Vol)로 포트폴리오 압축

Today's Key Chart

BOJ 금정위 앞두고, 엔/달러 환율 반등



- 달러당 110엔대까지 급락했던 엔/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 상승 랠리 지속 여부에 관심
- 엔저가 지속되려면, BOJ는 1) 추가 자산매입 여력이 있으며, 2) 통화정책이 일본 경기 회복 및 기업 수익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
- 이번 금정위를 통해 BOJ 자산매입 한계 우려는 완화되겠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따라서 정책 확대에도 엔/달러 환율 상승세 지속 어려울 것
- BOJ 통화정책 옵션으로는 1) 국채 매입 규모 확대, 2) ETF와 REIT 매입규모 확대, 3) 주식 매입 등이 예상.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국채 매입 규모 확대

투자포커스

BOJ가 할 수 있는 것들

Economist 이하연 hylee1107@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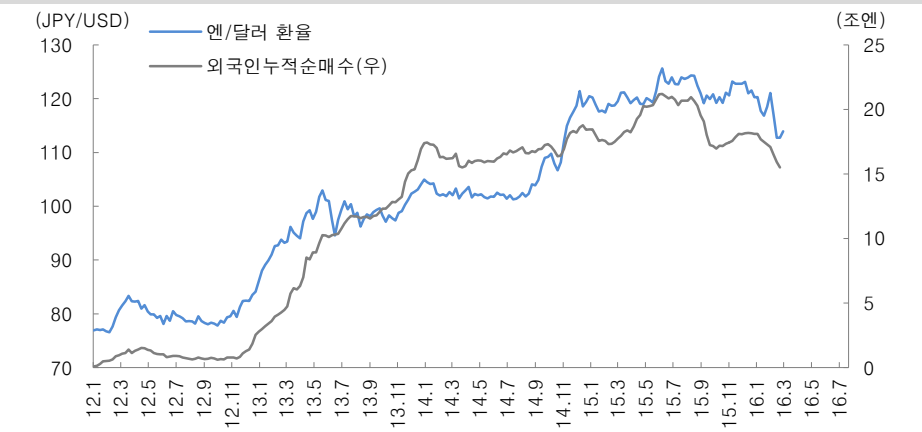
BOJ 통화정책 신뢰 회복과 엔/달러 환율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달러당 110엔대까지 급락했던 엔/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 상승은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와 중국발 유동성 공급이 글로벌 경기 우려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 공조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엔/달러 환율은 또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엔/달러 환율을 경제 펀더멘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난 3년간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엔화 약세와 외국인의 일본 주식순매수를 동시에 이끌어왔음을 감안하면 엔/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는 통화정책 신뢰 여부다.

지난 1월 금정위에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했지만, 추가 자산매입 여력이 없다는 점과 통화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일본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오는 3월 15~16일 예정된 금정위에서 BOJ는 추가 통화완화 여력과 정책 효과가 유효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는 엔화 가치 향방을 결정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림 1. 엔/달러 환율과 일본 주식 외국인 순매수



주: 외국인누적순매수는 2012년 이후
자료: JPX, Datastrea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BOJ 자산매입 확대 여력에 대한 우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한계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BOJ는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자산매입대상을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확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3월 시행이 아니라면,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있는 4월 금정위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하며 시장 기대감을 이끌고 갈 수도 있다.

1) 국채 매입 규모 확대

3년간 QQE 정책이 시행되면서 BOJ는 주로 시중은행(신탁은행 포함)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여왔다. 2012년 9월말 기준 일본 국채 잔액의 11.1%를 보유하던 BOJ는 2015년 9월말 기준 30.3% 보유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 보유비중은 42.4%에서 28.4%로 축소되었다. 이미 많은 은행들이 국채보유한도를 최소 수준까지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시장은 더 이상 BOJ가 살 수 있는 국채 물량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가 언급했듯이 아직 70%의 국채가 남아있다. BOJ의 다음 매입 대상은 유초은행(일본 우정)과 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초은행은 BOJ를 제외하면 최대 국채 보유기관이고, BOJ가 보유국채 잔존만기를 7~10년으로 유지해 보험사가 보유한 장기 국채는 주요 매입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은 수익 개선을 위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Satellite Portfolio)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초은행의 경우, 투자 자산 규모는 197조엔(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GPIF의 투자자산(135.1조엔) 보다 크며 포트폴리오의 46.9%가 국채(92.8조엔)다. 유초은행이 GPIF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BOJ의 국채 매입 규모 확대를 지지해줄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BOJ가 지난 연말 보유국채 잔존만기를 7~10년에서 7~12년으로 확장시키면서 보험사의 장기물이 BOJ의 매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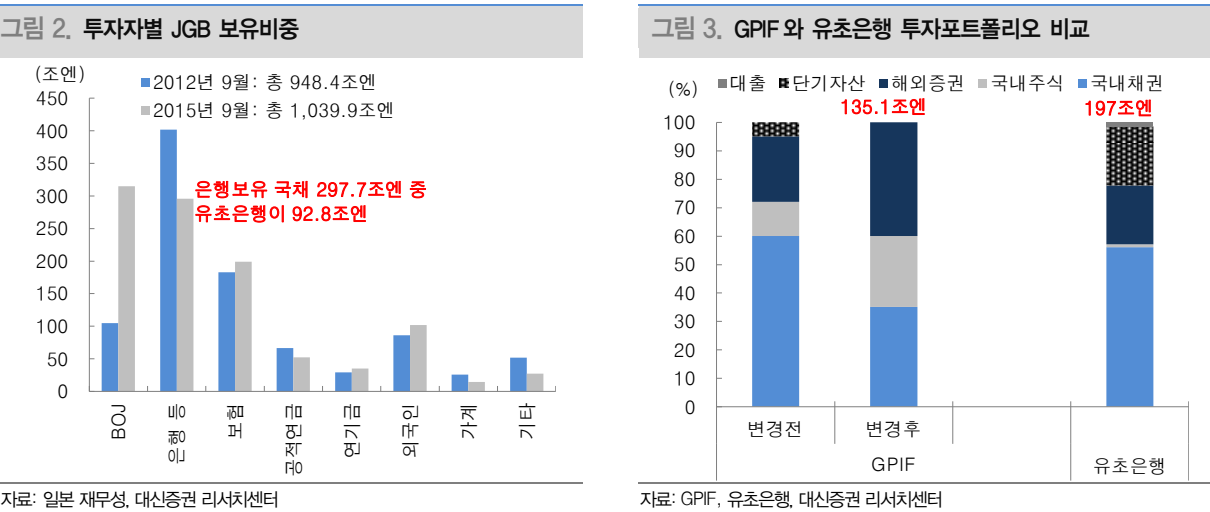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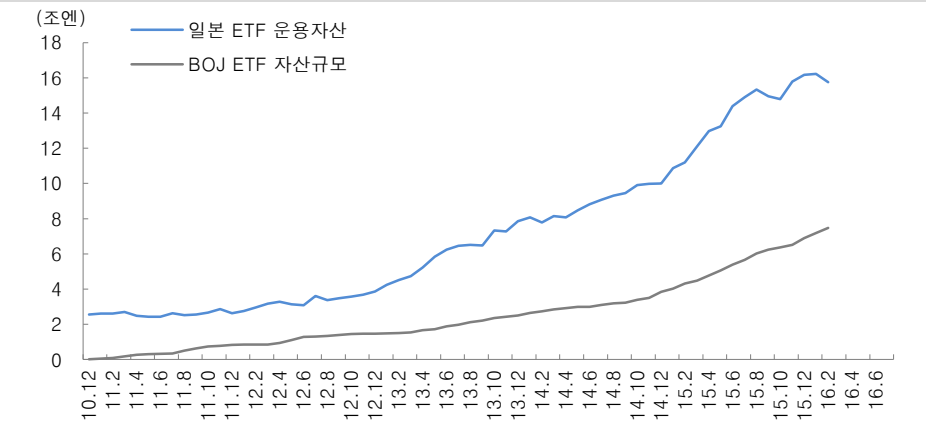


그림 4. BOJ, 일본 ETF 절반 정도 보유



자료: BOJ,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 ETF와 REIT 매입 규모 확대

BOJ는 현재 ETFs를 연간 3조엔, REITs연간 900억엔 매입하고 있다. ETF와 REIT의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면 일본 증시에 유동성이 직접 유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확대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QQE 도입 이후 일본 ETF 운용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15조엔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7조엔을 BOJ가 보유하고 있다.

3) 주식 매입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는 자산매입대상에 주식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책 서프라이즈다. BOJ는 2002년 양적완화 시행 당시에도 신탁을 통해 약 2조엔의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 정책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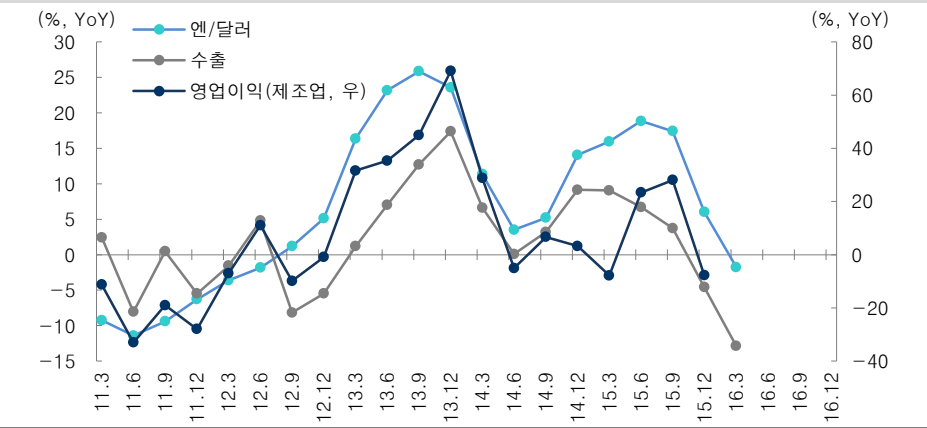
통화정책 무용론에 대한 우려

문제는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엔저가 기업수익 개선을 이끌고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본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며 최근에는 기업 수익 개선 효과마저 둔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16분기 중 8차례 역성장을 기록했고,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로다 총재는 BOJ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일본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BOJ 총재의 발언을 믿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된 엔화 약세에 엔저 효과가 체감되며 수출과 기업 영업이익(제조업 기준)이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에도 감소 전환되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 이상 일본 기업 이익 개선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3년간 지속되었던 외국인의 '일본주식 매수+엔화 매도' 전략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전환이 엔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엔저 효과 체감되며 지난해 4분기 수출과 제조업 영업이익 감소 전환



주: 엔/달러 환율 최근 값은 1,2월 평균 기준, 수출 최근 값은 1월 기준
자료: CEI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BOJ가 이번 금정위에서 추가 통화정책 여력과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를 모두 회복한다면 엔/달러 환율은 2014년 이후 중기 지지선인 116엔대를 회복하며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구로다 총재의 발언 만으로 정책 효과(경기 회복 혹은 기업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확대에 따른 시장 반응은 갈수록 둔화되고 지속 기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BOJ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지만, BOJ와 아베 총리는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추가 자산매입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엔/달러 환율이 110엔 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였던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아베 정권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다.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전에 경기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아베 정권과 BOJ를 압박하고 있다.

Today's Data Snapshot

<Thursday> KOSPI / KOSDAQ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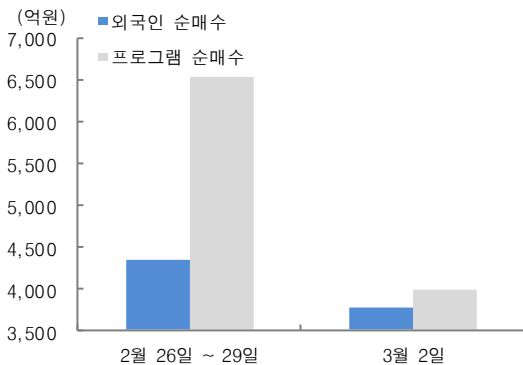
[목요일] KOSPI / KOSDAQ 수급

Strategist 이경민 kmlee337@daishin.com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글로벌 Passive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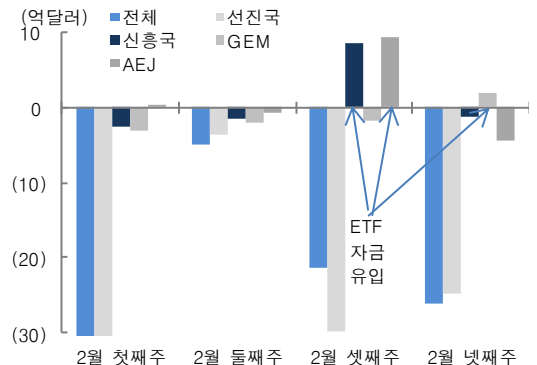
- 1. 외국인 순매수 중심은 프로그램 : 3월 2일 외국인 3,778억원 순매수(15년 5월 15일 이후 최대). 외국인 순매수 중심은 프로그램 매매(3,982억원 순매수). 외국인 매매패턴은 프로그램 순매수, 비프로그램 순매도
- 2. 글로벌 Passive 자금 유입 : 신흥국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 ETF 자금 유입전환 영향. EPFR 기준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17주 연속 자금 유출. 반면, 1월 중순 이후 ETF에서는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감지. 1) 선진국 정책 신뢰도 약화로 인해 신흥국(특히, 신흥아시아)의 차별적인 이익/경기모멘텀 기대감에 Passive자금이 유입될 가능성과 2) 적극적인 유입세는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별 비중조정 가능성 있음. 한국 비중은 16년 1월말 기준 14.45%로 과거 평균(07년 이후 17.05%, 09년 이후 16.47%)대비 매우 낮은 상황

그림 6. 외국인 순매수를 뛰어넘는 프로그램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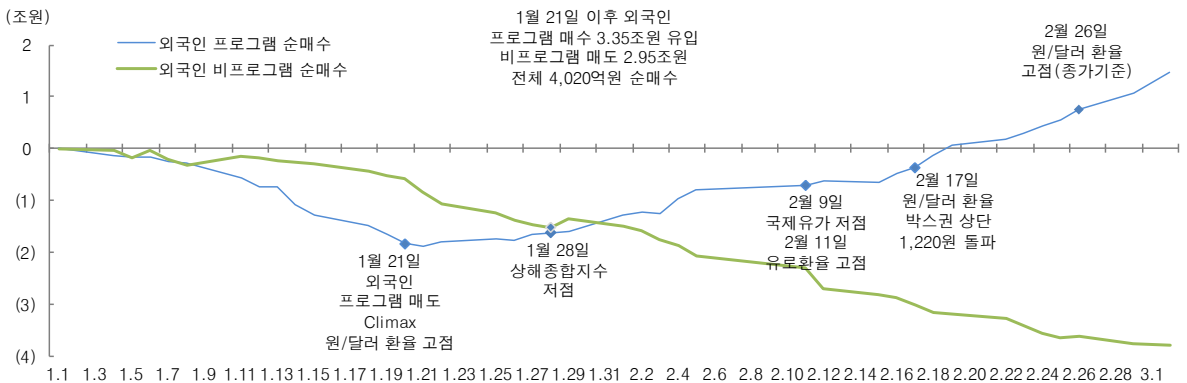
자료: KRX,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글로벌 ETF 자금 지역별 유출입



자료: EPFR,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1월 21일 이후 외국인 매매패턴, 프로그램 매수 / 비프로그램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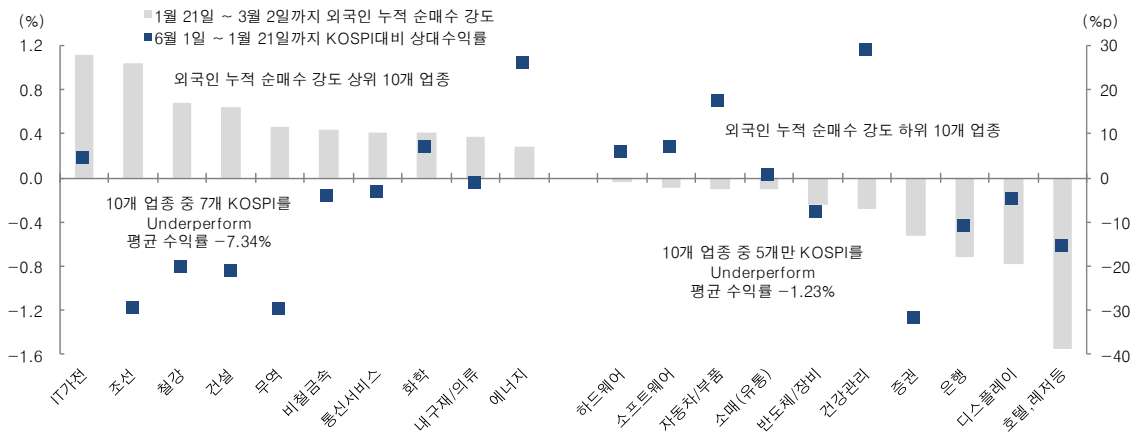


자료: KRX,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가격메리트가 우선인 외국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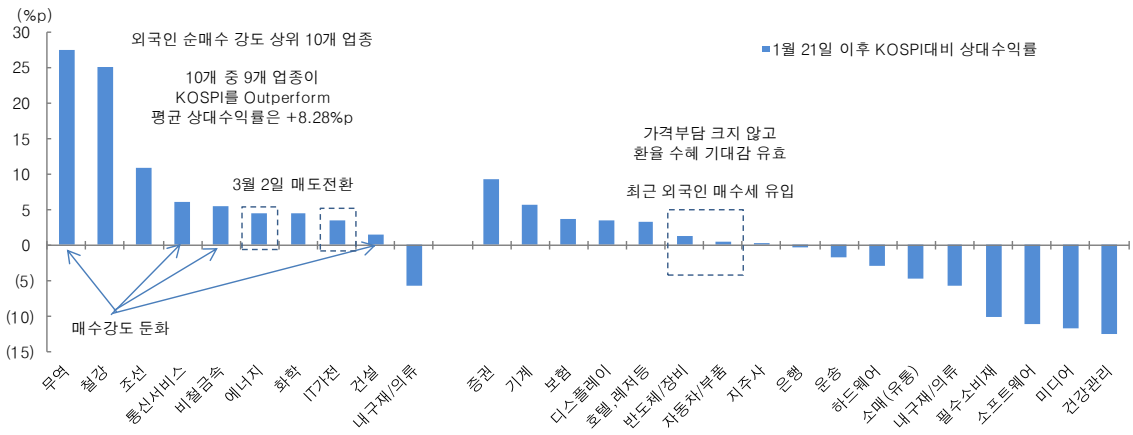
- 1. 외국인 순매수 기준, 가격메리트 :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1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강도 상위 10개 업종은 1월 21일 기준 가격메리트 뚜렷. IT가전, 화학, 에너지는 환율, 유가 반등 기대. 반면, 순매수 강도 하위 업종은 가격부담이 컸던 업종. 자동차/부품은 1월 21일 당시 KOSPI를 17%p Outperform. 동일 스타일 내에서도 외국인은 가격메리트에 따라 매매패턴 엇갈림(상대적으로 IT가전 가격메리트 높았음)
- 2. 외국인 순매수 업종들의 가격부담, 매매패턴 변화 가능성 : 최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들의 가격부담 가중. 순매수 상위 10개 업종 중 9개가 KOSPI를 Outperform(평균 상대 수익률 +8.28%p). 실제 에너지, IT가전은 3월 2일 순매도 전환. 무역, 통신서비스, 비철금속, 건설 업종은 매수강도 둔화 뚜렷
- 3. 외국인 다음 타겟, 반도체, 자동차/부품 : 최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주목. 가격부담 크지 않고, 환율 수혜, 실적 개선 기대감 유입 가능성. 가격메리트에 따른 외국인 순환매 전개시 다음 타겟으로 예상

그림 9. 외국인 업종별 순매수 강도(1월 21일 ~ 3월 2일). 가격메리트에 엇갈린 매매패턴



주: 순매수 비중 = 업종별 순매수 금액 / 시가총액 금액,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외국인 순매도전환(6월 1일) 이후 순매수재개 직전까지 기준
자료: KRX,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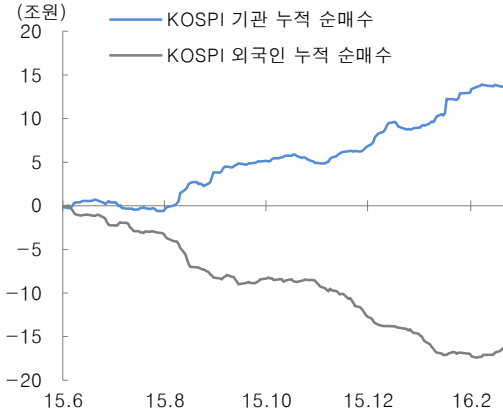
그림 10. 외국인 순매수 업종들의 가격부담 가중, 가격메리트에 따른 순환매 가능성



주: KOSPI 대비 상대수익률은 외국인 순매수 유입(1월 21일) 이후 3월 2일까지 기준
자료: KRX,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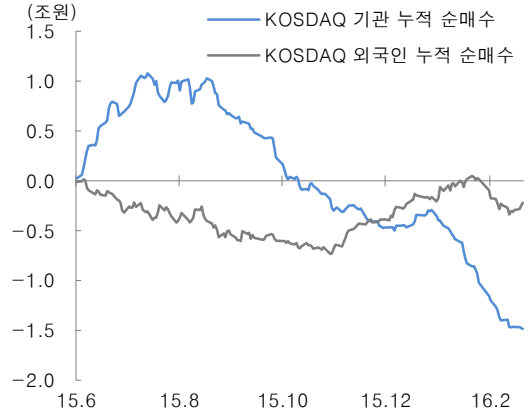
1. KOSPI & KOSDAQ, 외국인/기관 매매동향

그림 11. KOSPI 외국인/기관 누적 매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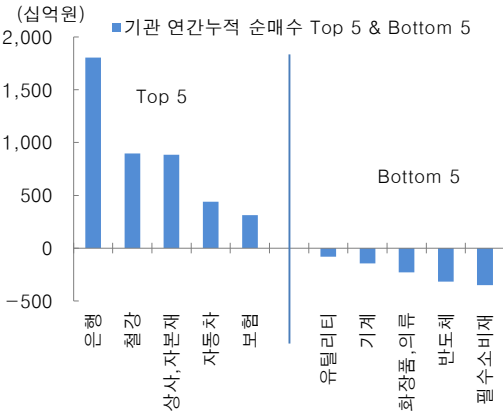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KOSDAQ 외국인/기관 누적 매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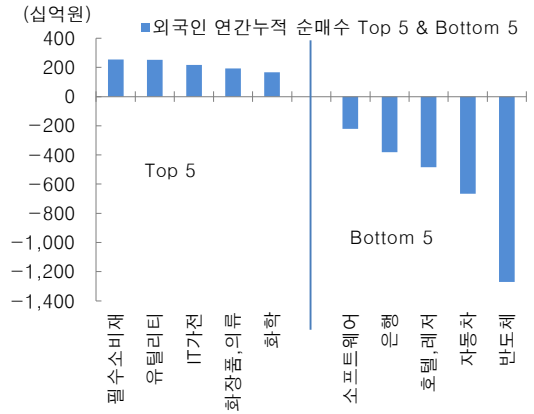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기관 연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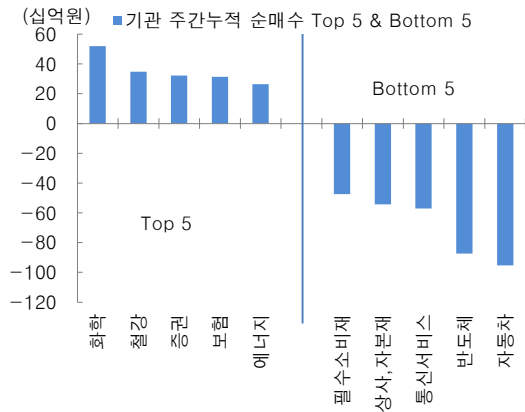
주: 2016년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외국인 연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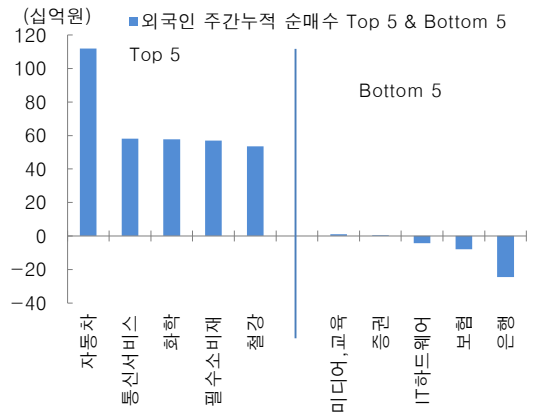
주: 2016년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기관 주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주: 주간 누적 순매수는 2월 29일 ~ 3월 2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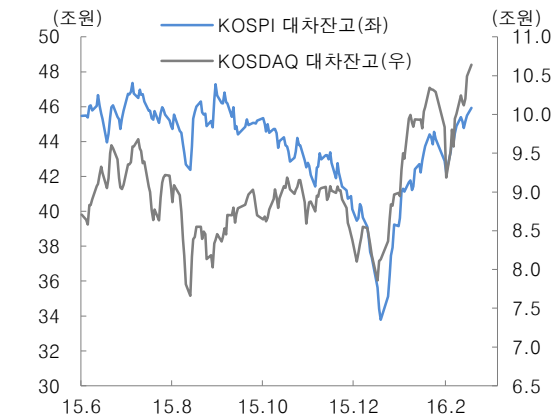
그림 16. 외국인 주간누적 순매수 Top 5 & Bottom 5 업종



주: 주간 누적 순매수는 2월 29일 ~ 3월 2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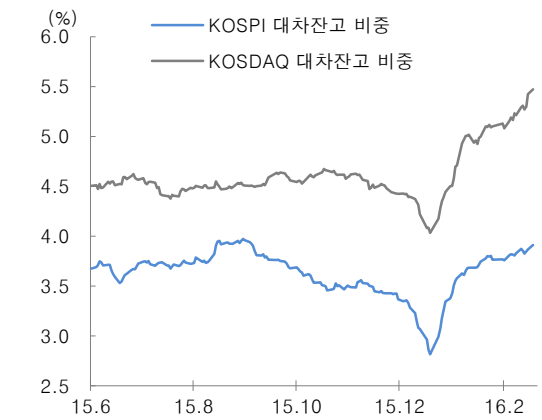
2. KOSPI & KOSDAQ, 대차거래 추이

그림 17. KOSPI & KOSDAQ 대차잔고 추이(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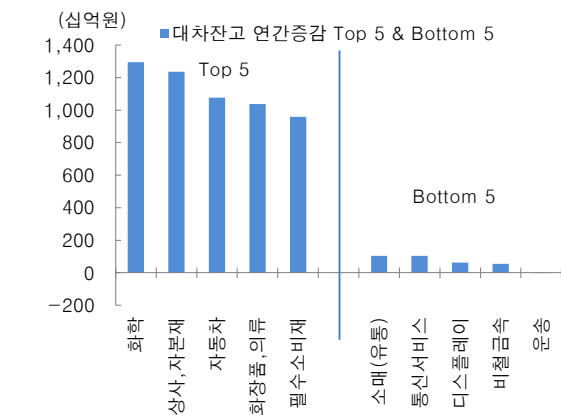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월 29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KOSPI & KOSDAQ 대차잔고 추이(비중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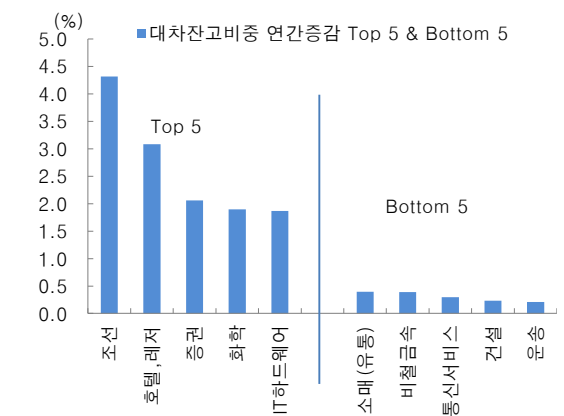
주: 대차잔고 비중은 KOSPI & KOSDAQ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데이터는 2월 29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대차잔고 연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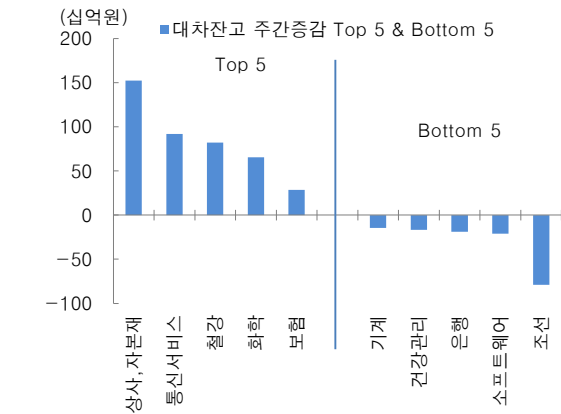
주: 2016년 연초 이후 누적. 데이터는 29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대차잔고 연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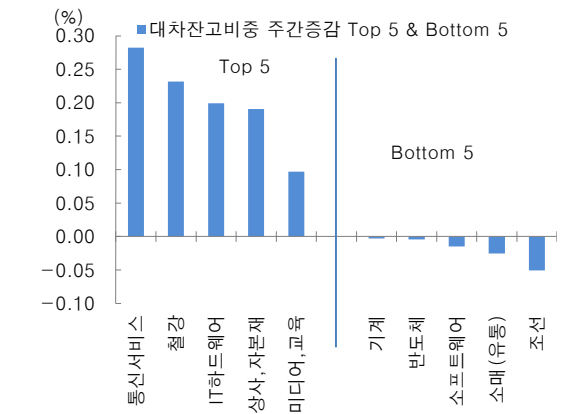
주: 대차잔고 비중은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2016년 연초 이후 누적. 데이터는 29일 기준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대차잔고 주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금액)



주: 데이터는 2월 29일 금액 변화 누적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대차잔고 주간증감 Top 5 & Bottom 5 업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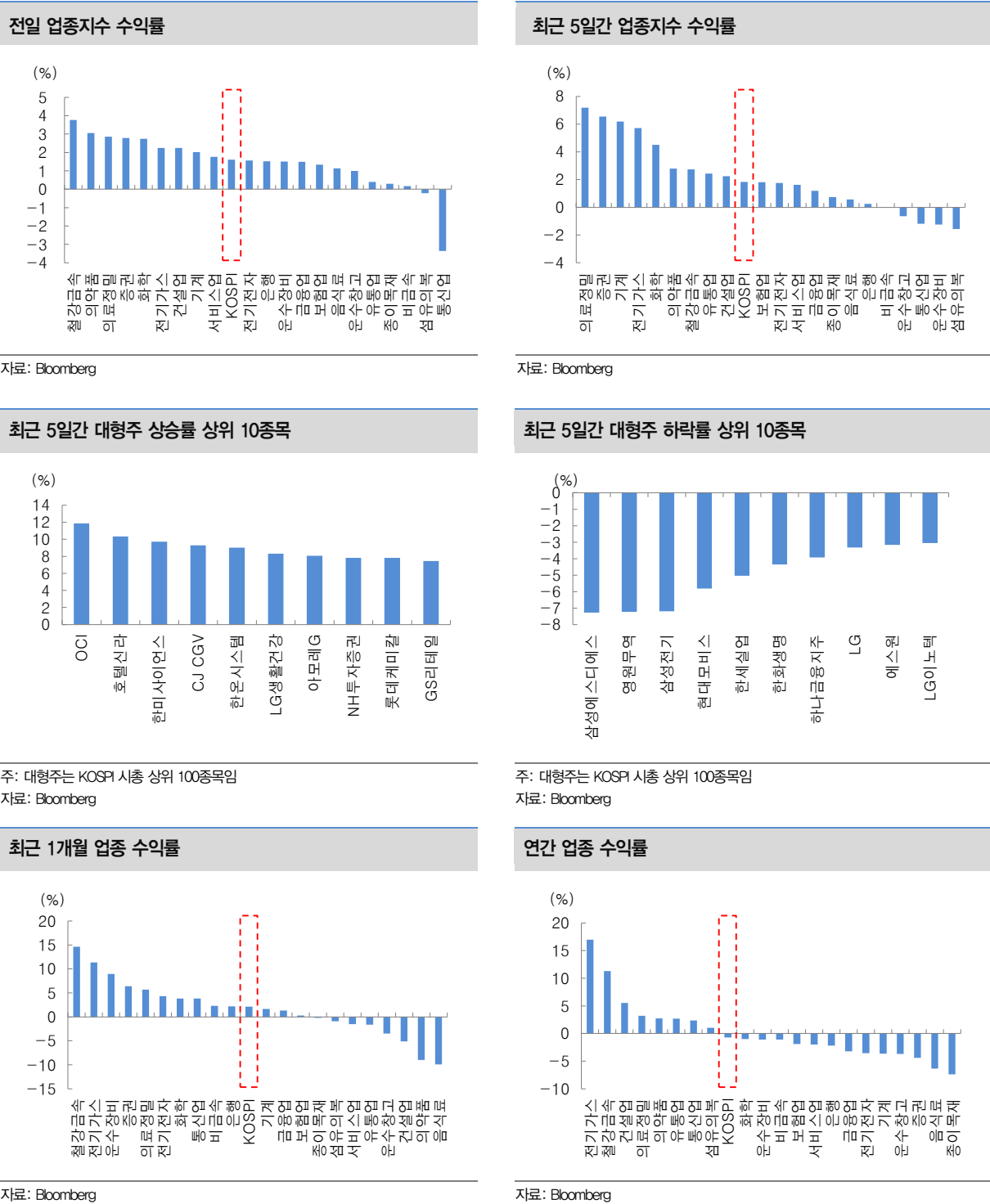
주: 대차잔고 비중은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중. 데이터는 2월 29일 비중 변화 누적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2일 KOSPI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60% 상승한 1,947.42에 거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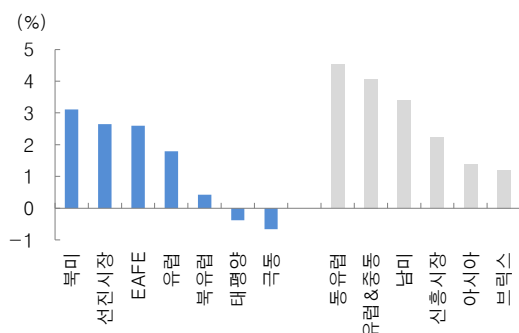
외국인은 3,781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123억원, 144억원 매도 우위

▶ 국내 증시



▶ 해외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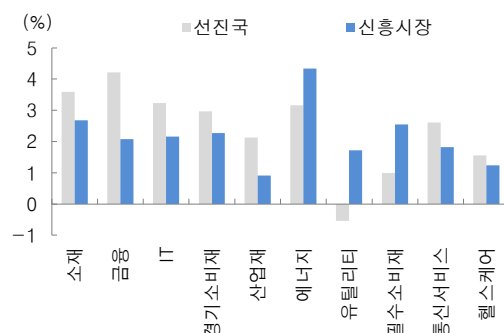
최근 5일간 MSCI 지역지수 등락률



주: FAFF는 유럽 호주 극동아시아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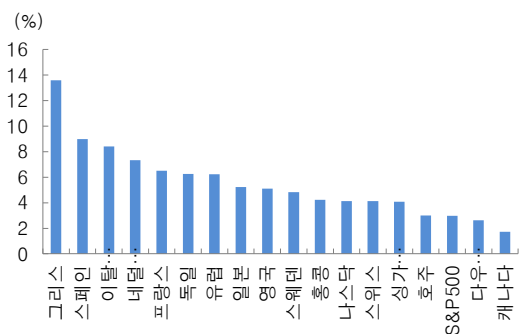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MSCI 산업지수 등락률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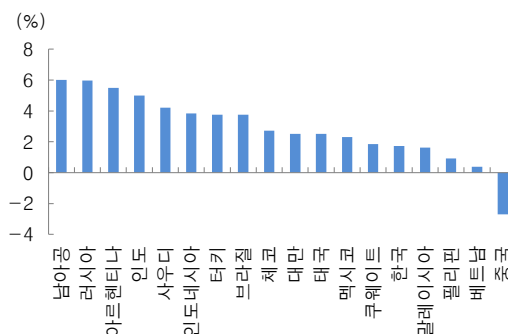
최근 5일간 선진국 주요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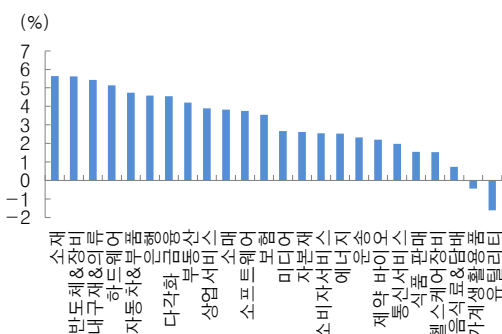
주: 그리스(ASE), 스페인(IBEX), 싱가포르(STI), 홍콩(HIS), 독일(DAX), 캐나다(S&P/TSX), 이탈리아(MIB), 프랑스(CAC), 유럽(SX5P), 호주(AS51), 네덜란드(AEX), 인도(SENSEX), 사우디(SASEDX), 필리핀(PCOMP), 태국(SET), 베트남(VNINDEX), 쿠웨이트(KWSEDX), 인도네시아(JCI), 브라질(BOV), 한국(KOSPI), 아르헨티나(MERVAL), 멕시코(MEXBOL), 말레이시아(KLCI), 터키(XU100), 남아공(TOP40), 중국(SHCOMP), 대만(TWSE), 체코(PX), 러시아(RTSS\$)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신흥시장 주요국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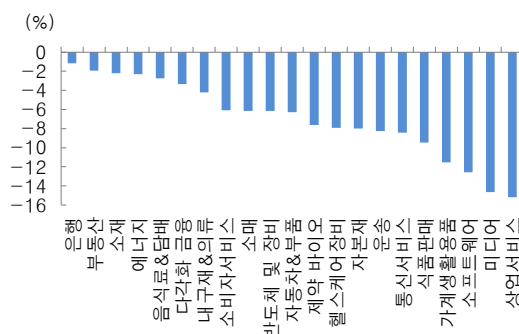
최근 5일간 미국 증시의 업종지수 등락률



주: S&P5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중국 업종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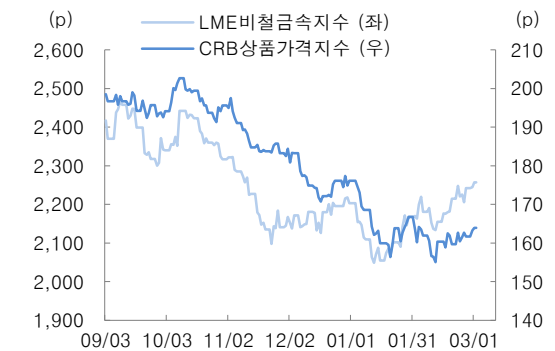
주: 상해 A시장의 종목들로 구성된 S&P/CITIC 3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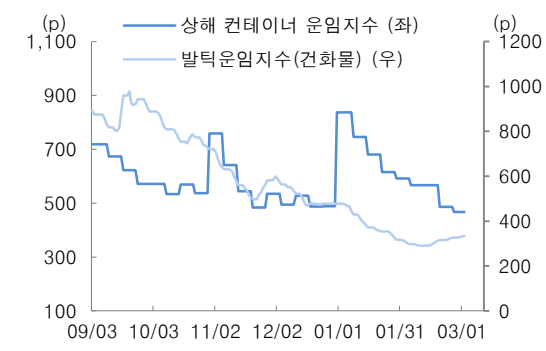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1.93% 상승한 34.40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4월 인도분이 전일 종가보다 0.29% 내린 온스당 1230.8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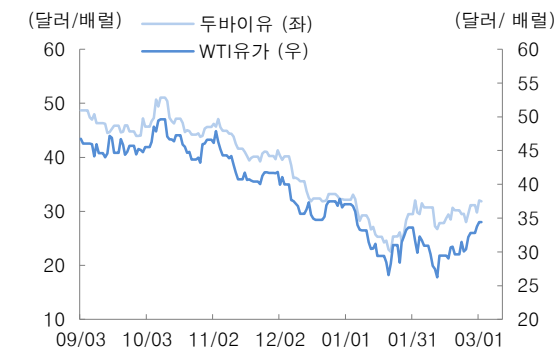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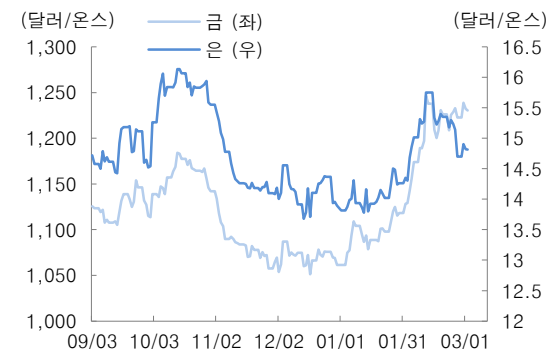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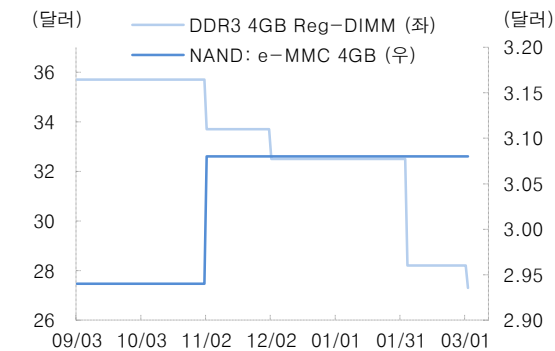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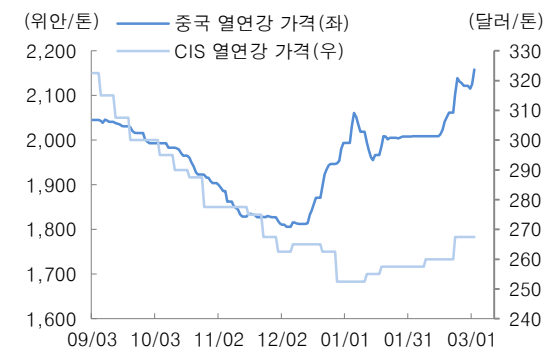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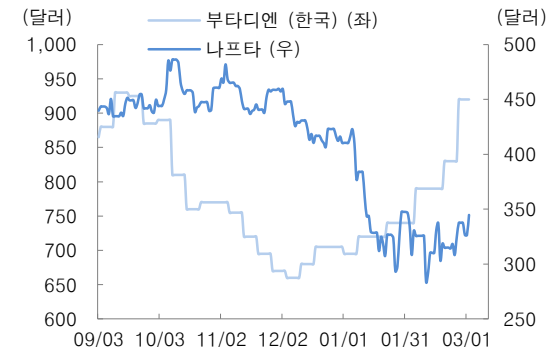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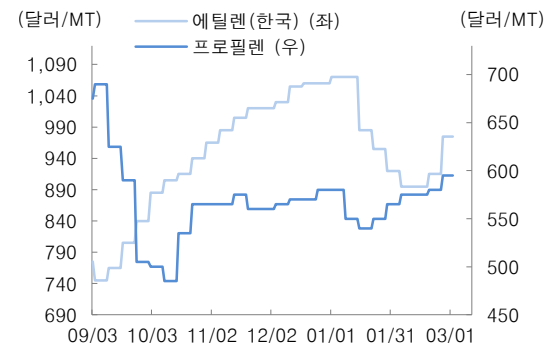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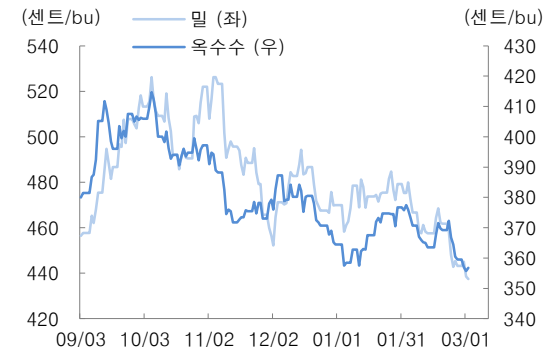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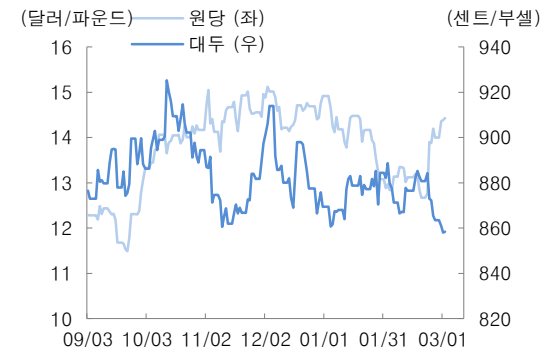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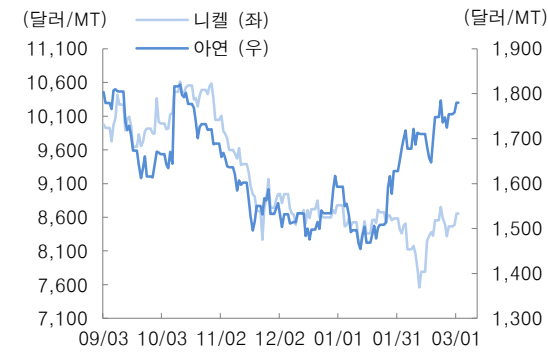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당, 대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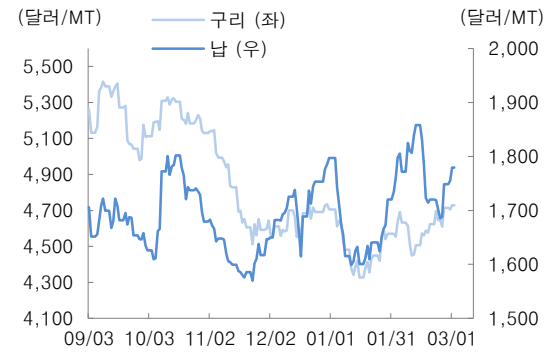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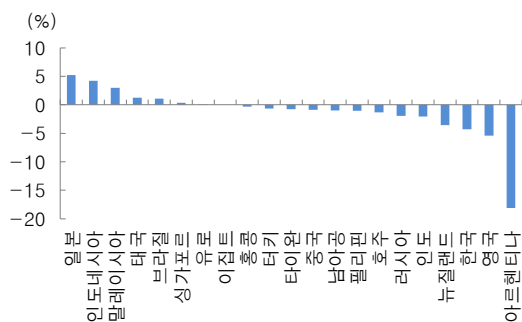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227.5원에 장을 마감
- 2일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5bp 오른 1.469%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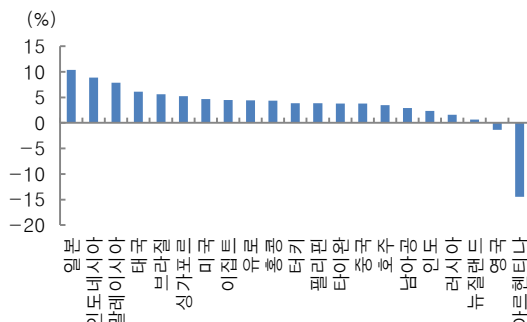
▶ **한글**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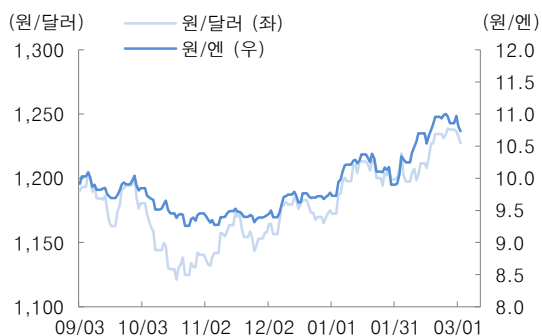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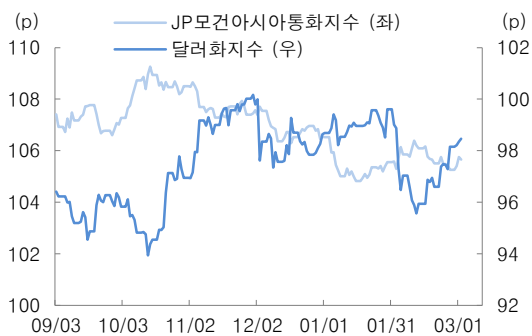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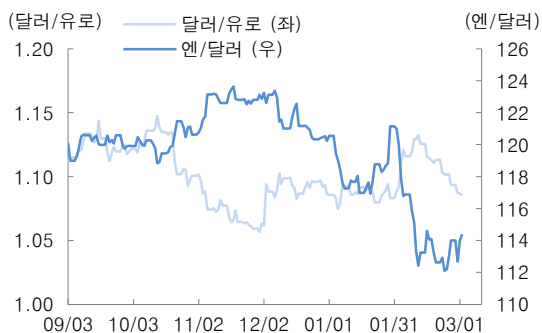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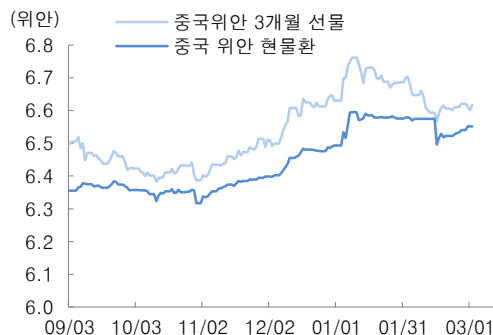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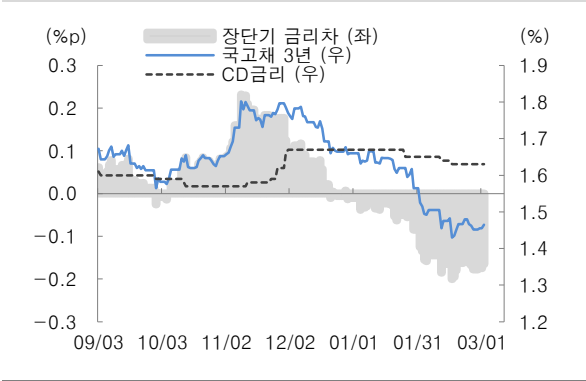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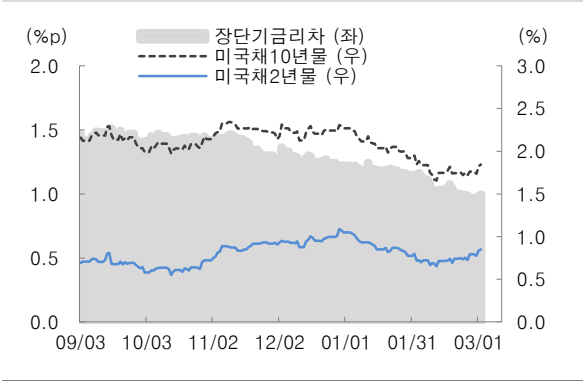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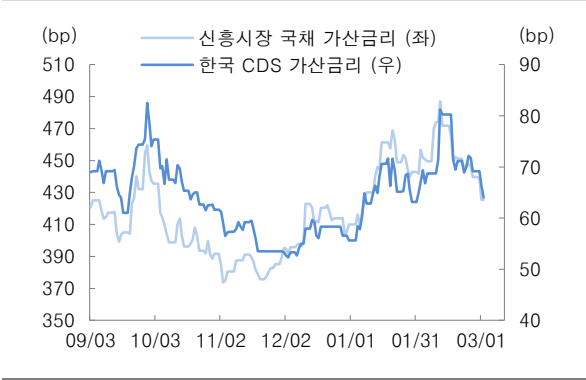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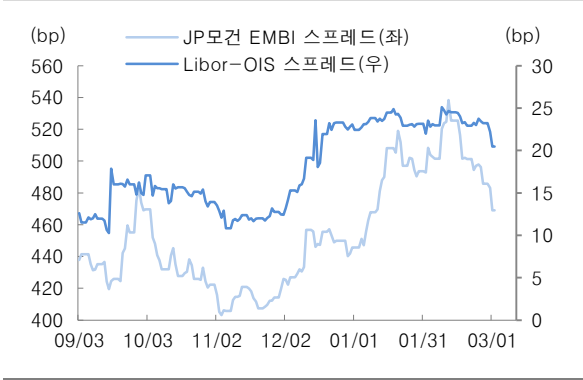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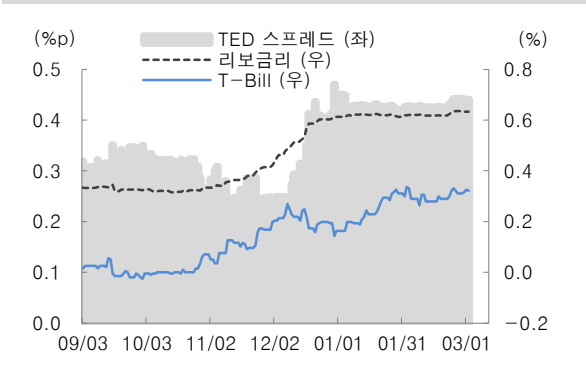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JP모건 EMBI 스프레드, Libor-OIS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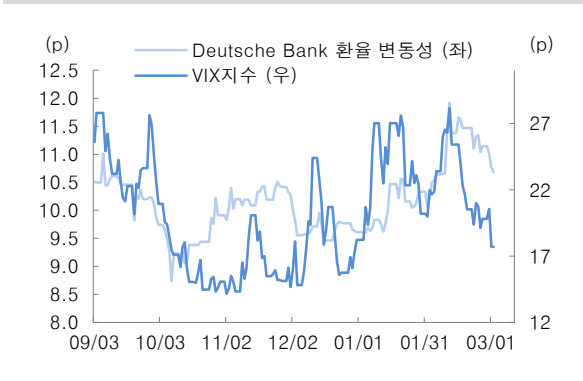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Deutsche Bank 환율 변동성과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3/02	2/29	2/26	2/25	2/24	03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411.0	-53.8	-42.7	100.8	-32.7	-411	-1,098
외국인	376.0	171.9	242.4	19.7	-20.0	376	-2,326
기관계	-15.4	-189.3	163.4	-11.2	-16.6	-15	4,585
금융투자	44.4	12.6	99.9	43.1	-14.6	44	963
보험	57.2	25.1	11.1	18.5	24.9	57	2,846
투신	-184.6	-164.7	-73.3	-29.1	-4.8	-185	1,060
은행	2.8	-0.1	-2.8	-10.5	-1.8	3	-166
기타금융	5.9	-3.3	-15.9	-25.2	1.9	6	-21
연기금	25.8	118.6	57.6	17.4	-4.3	26	156
사모펀드	22.3	-176.7	-76.2	-16.3	-18.0	22	-164
국가지자체	10.7	-0.9	163.0	-9.1	0.0	11	-88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현대차	33.2	삼성생명	13.9	POSCO	37.6	삼성전자	33.5
한미약품	32.6	하나금융지주	10.3	LG 화학	19.6	SK 텔레콤	30.6
POSCO	31.9	KB 금융	9.2	NAVER	17.6	한국전력	23.6
SK 하이닉스	27.3	삼성에스디에스	5.8	SK 이노베이션	15.8	CJ	17.5
삼성전자	24.6	부광약품	5.5	호텔신라	15.5	현대차	15.7
한국전력	23.8	삼성전기	5.5	삼성생명	14.2	현대모비스	15.5
LG 생활건강	21.1	미래에셋증권	5.2	S-Oil	13.2	삼성물산	13.9
LG 화학	15.8	LG 전자	5.2	SK 하이닉스	12.9	삼성전기	11.4
기아차	15.7	SK 이노베이션	4.5	CJ CGV	12.2	현대글로비스	8.3
현대모비스	12.9	신세계	4.1	한미약품	11.0	LG 생활건강	8.2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셀트리온	32.3	삼천리자전거	3.3	셀트리온	13.1	CJ E&M	10.0
이오테크닉스	7.1	파트론	2.7	디오	2.7	AP 시스템	7.3
에스에프에이	5.4	아이씨디	2.3	에스엠	2.5	에스에프에이	6.5
컴투스	3.0	메디포스트	2.3	큐리언트	2.4	인트론바이오	4.1
인트론바이오	2.8	인바디	2.2	원익 IPS	2.2	메디톡스	3.6
바이로메드	2.7	오스텝임플란트	1.9	한국토지신탁	1.9	안트로젠	3.4
크루셀텍	2.7	휴온스	1.6	연우	1.9	테라세미콘	3.1
비아트론	2.2	인랩	1.6	SK 머티리얼즈	1.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3
산성엘엔에스	2.0	실리콘웍스	1.5	엘오티베콤	1.3	이오테크닉스	1.8
파라다이스	1.9	에스엠	1.4	바이로메드	1.3	파라다이스	1.6

자료: KOSCOM

▶ 최근 5 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물산	142.3	1.6	삼성전자우	72.1	2.8	삼성물산	241.7	1.6	삼성전자	175.8	2.1
POSCO	87.1	4.7	삼성생명	65.8	0.0	삼성생명	110.3	0.0	SK 텔레콤	84.2	-2.4
현대차	83.7	0.7	삼성전자	40.0	2.1	LG 디스플레이	52.3	3.3	한국전력	63.9	6.0
SK 텔레콤	80.3	-2.4	한전 KPS	30.9	-1.5	SK 하이닉스	36.9	0.2	한화케미칼	56.3	4.5
한국전력	74.1	6.0	유한양행	29.1	-0.7	OCI	34.5	11.9	현대차	48.6	0.7
LG 생활건강	52.4	8.3	하나금융지주	24.2	-3.9	SK	32.3	3.5	삼성전기	47.1	-7.2
LG 전자	40.5	2.0	LG	23.2	-3.3	NAVER	27.8	5.0	현대글로비스	37.4	-2.5
한화케미칼	39.2	4.5	SK	18.8	3.5	CJ CGV	22.7	9.3	LG 생활건강	30.8	8.3
한미약품	35.0	6.3	효성	18.1	1.6	삼성전자우	21.4	2.8	현대모비스	26.1	-5.8
롯데케미칼	34.7	7.8	신세계	16.7	2.7	LG	20.0	-3.3	고려아연	24.5	-0.3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물산	241.7	1.6	삼성전자	175.8	2.1	삼성물산	241.7	1.6	삼성전자	175.8	2.1
삼성생명	110.3	0.0	SK 텔레콤	84.2	-2.4	삼성생명	110.3	0.0	SK 텔레콤	84.2	-2.4
LG 디스플레이	52.3	3.3	한국전력	63.9	6.0	LG 디스플레이	52.3	3.3	한국전력	63.9	6.0
SK 하이닉스	36.9	0.2	한화케미칼	56.3	4.5	SK 하이닉스	36.9	0.2	한화케미칼	56.3	4.5
OCI	34.5	11.9	현대차	48.6	0.7	OCI	34.5	11.9	현대차	48.6	0.7
SK	32.3	3.5	삼성전기	47.1	-7.2	SK	32.3	3.5	삼성전기	47.1	-7.2
NAVER	27.8	5.0	현대글로비스	37.4	-2.5	NAVER	27.8	5.0	현대글로비스	37.4	-2.5
CJ CGV	22.7	9.3	LG 생활건강	30.8	8.3	CJ CGV	22.7	9.3	LG 생활건강	30.8	8.3
삼성전자우	21.4	2.8	현대모비스	26.1	-5.8	삼성전자우	21.4	2.8	현대모비스	26.1	-5.8
LG	20.0	-3.3	고려아연	24.5	-0.3	LG	20.0	-3.3	고려아연	24.5	-0.3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3/02	2/29	2/26	2/25	2/24	03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356.3	145.7	211.2	8.3	11.6	356	-2,014
대만	258.2	--	305.2	201.6	-28.9	407	266
인도	--	-248.7	-85.0	-154.9	-75.9	--	-2,872
태국	101.4	-3.8	-38.4	3.2	38.2	97	-108
인도네시아	36.2	19.7	11.4	-1.8	-25.5	53	191
필리핀	22.1	-12.8	-14.8	--	-8.8	33	-95
베트남	6.2	-1.0	0.1	0.7	1.6	7	-63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